

중년기 부부의 애착 유형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 나 영¹⁾

초록아이 아동발달센터

정 영 숙²⁾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부 105쌍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부부의 애착유형은 남편과 아내 모두 안정애착이 가장 많았다. 애착유형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 점수에서는 안정형 애착 아내는 불안정 애착 아내보다 보살핌의 세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남편의 경우에는 민감성과 협동성에서 일부 집단 간에만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 평가에서는 안정형 남편과 아내 모두 불안정한 집단에 비해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안정형 애착일 경우가 불안정 애착일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주관적 안녕감에서는 안정형 애착 아내는 불안정 애착 유형의 아내에 비해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 모두 높았으나, 안정형 애착 남편은 불안정 애착 유형의 남편에 비해 정서적 안녕감만 높았다. 안정애착,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 및 긍정적 환상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안정애착이 결혼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보살핌, 긍정적 환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안정애착에서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모형을 탐색한 결과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만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중년기 부부, 애착유형, 결혼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보살핌, 긍정적 환상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NRF-2010-330-B00303), 2011년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음.

1) 초록아이 아동발달센터, 상담원

2)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yschong@pusan.ac.kr)

I. 서 론

부부관계는 성인기 동안 가장 중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성인기를 대표하는 애착 관계이다(김민희, 민경환, 2007; Ainsworth, 1989). 특히 자녀의 독립과 더불어 부부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년기는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부부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년기 부부관계는 개인의 삶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현숙, 2001).

성인기 애착 연구는 Hazan과 Shaver(1987)가 Bowlby(1958)의 애착이론에 토대를 두고 성인기 이성간의 사랑을 애착과정으로 개념화하면서 촉진되기 시작하였다. 성인기 애착이란 성인기에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제공하는 특정인과 근접성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개인의 안정된 경향성이다(Berman & Sperling, 1994). 성인기 애착은 주로 낭만적 관계와 부부관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인기 애착 유형으로 3범주 분류(Hazan & Shaver, 1987)와 4범주 분류(Bartholomew & Horowitz, 1991)가 있다. Hazan과 Shaver(1987)가 제안한 3범주에는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이 있고,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에는 안정형, 거부-회피형, 몰두형, 공포-회피형이 있다. 성인기에 다른 사람과의 애착유형이 안정형일 때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고(Perren, Schmid, Herrmann, & Wettstein, 2007; Wei, Liao, Ku, & Shaffer, 2011), 관계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은, 2005; 김민희, 민경환, 2007; 이희숙, 박경, 2008; Kobak & Hazan, 1991; Senchak & Leonard,

1992; Simpson, 1990).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배우자가 안식처와 안전기지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주느냐에 따라 결혼만족이나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Collins & Feeney, 2000). 안정애착을 보이는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근접하여 보살피고 지지하여 서로에게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관계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6; Fuller & Fincham, 1995; Kirkpatrick & Davis, 1994). 상대방에게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보살핌과 애착은 성적 매력이나 사라진 후에도 둘 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한다(Ainsworth, 1989).

성인기 애착유형이 친밀관계의 질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 안정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회피형이나 양가형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Levy & Davis, 1988). 또한 안정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관계만족도가 높았지만 회피나 양가형 애착의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신뢰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impson, 1990).

애착유형은 결혼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형 애착 배우자는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배우자보다 결혼관계에 대해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Kobak & Hazan, 1991). 부부 모두 서로에게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커플은 부부 모두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보이는 커플이나 한쪽 배우자만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커플에 비해 결혼생활에 대한 적

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nchak & Leonard, 1992). 한국 부부를 대상으로 애착유형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도 안정형 애착을 보인 커플이 불안정한 애착을 보인 커플에 비해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은, 2005).

애착유형은 관계의 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 애착을 보인 개인은 불안정 애착을 보인 사람에 비해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이 더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성인초기의 대학생들은 이성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보일 때 개인의 학업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 수준도 낮았다(Moore & Leung, 2002). 배우자가 치매인 경우에도 안정 애착을 보인 사람은 불안정 애착을 보인 사람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Perren, Schmid, Herrmann, & Wettstein, 2007).

성인기 애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낭만적애착과 부부간의 애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성인기 애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결혼 초기의 신혼부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Bartholomew & Hrowitz, 1991; Gallo & Smith, 2001; Kirkpatrick & Davis, 1994). 반면에 중년기 이후의 부부애착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민희, 민경환, 2007; Klohnen & Bera, 1998). 둘째, 많은 성인기 애착연구가 애착유형과 관계만족도 또는 결혼만족도와의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애착유형이 어떻게 해서 관계만족도를 높이는지에 관한 기제나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김민희, 민경환, 2007; 이희숙, 박경, 2008; Davila, Bradbury, & Fincham, 1998). 이런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40-50대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애착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런 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살핌에 관하여 살펴보면, 유아는 양육자와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의 민첩하고 반응적인 보살핌을 통해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양육자의 보살핌에 일관성이 없을 때 불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타인, 그리고 관계에 관한 내적작동모델로 조직화되고, 이 내적 작동모델은 이후 사회적 관계의 바탕이 된다(Bowlby, 1989; Kunce & Shaver, 1994). 즉, 상대방에 대한 보살핌은 파트너의 애착 행동을 보완하고 도움이나 지지를 제공하고 안락감, 안심, 안전 기지를 제공하며 자율성을 격려해줄 수 있기 때문에(Bowlby, 1969, 1988; Kunce & Shaver, 1994), 민감하고 따뜻하며 협동적인 보살핌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낭만적 관계의 초반에는 성적 매력 이 중요하지만 관계가 지속될수록 애착과 보살핌이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한다(Ainsworth, 1989). 데이트 집단과 기혼자 집단을 대상으로 애착, 보살핌, 그리고 관계만족 사이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 안정 애착형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유익한 보살핌을 제

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살핌이 관계만족을 증진시키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6). 우리나라 부부의 애착, 보살핌, 및 결혼만족과의 관계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형 사람들이 불안정 애착형 사람들보다 배우자를 더 많이 보살피고, 보살핌을 제공할 의사가 높으며, 보살핌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끼는 나타나 안정애착 정도가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은 다시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김민희, 민경환, 2007), 긍정적이고 반응적인 보살핌이 결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낭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Kuncle와 Shaver(1994)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 집단은 보살핌의 하위 영역인 근접성과 민감성이 높았지만, 거부적-회피 애착 집단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살핌은 지속되는 관계에서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배우자의 지지와 보살핌이 성인기 부부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도(Cutrona, 1996; Feeney, 1996; Weiss, 1982)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이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와 같은 특정 관계 속에 있는 개인이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는 데에는 자신의 관계가 매우 좋고, 상대 파트너가 자신을 보살피고 책임져주며 의지할만한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Holmes & Rempel, 1989; Murray, 1999). 상대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은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행동을 하도록 기여함으로써 관계를 더 만족스럽게 지속시킬 수 있다(Felmlee, Sprecher, & Bassin, 1990;

Johnson & Rusbult, 1989).

긍정적 환상은 원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킴으로써 적응에 도움이 된 데에서 나온 개념이다(Taylor & Brown, 1988). 이후 Murray, Holmes와 Griffin(1996b)은 자기고양 지각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이상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긍정적인 평가를 긍정적 환상이라고 불렀다. 만족스러운 데이트관계와 결혼관계에서는 사람들이 파트너를 볼 때 자신이 보고 싶은 좋은 점을 보게 되며, 상대방이 자신의 이상적인 파트너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Murray, Holmes, & Griffin, 1996a). 아마도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환상은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인 해석적 여과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Holmes & Rempel, 1989; Murray, 1999; Murray & Holmes, 1993, 1994; Murray et al., 1996b). 연인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백혜영(2007)의 연구에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상대파트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행복하고 안정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이기도 하다. 안정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박고운, 이기학, 2007; Bartholomew & Horowitz, 1991),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에 있는 부부들은 배우자에 대해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Murray & Holmes, 1997; Murray, Holmes, Dolderman, & Griffin, 2000). 배우자의 특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부부들은 더 행복하고

안정된 관계를 보여줌으로써(Murray, Holmes, Dolderman, & Griffin, 2000),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결혼만족도나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성인기 애착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는 안정애착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개인의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애착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도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이나 긍정적 평가가 관계만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년기의 부부관계가 개인과 행복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애착유형을 살펴보고, 애착유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환상과 보살핌, 결혼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관련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중년기 부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 긍정적 환상, 결혼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중년기 부부 애착 유형에 따라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에 차이가 있는가?

1-2. 중년기 부부 애착 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년기 부부의 안정애착과 결혼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보살핌 및 긍정적 환상이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안정애착이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2-3.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은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43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기 부부 110쌍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미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쌍을 제외한 105쌍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쌍에서 남편의 평균 연령은 52.01세이었고, 아내의 평균 연령은 49.52세이었다. 교육수준은 남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9명(37.1%)이었다. 아내의 경우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 64명(61.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25명(23.8%)이었다. 월평균수입은 남편이 400만원 이상이 32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미취업이 49명(46.7%)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형태는 연애

결혼이 58쌍(55.2%)으로 중매결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가 84쌍(8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만이 함께 사는 부부가 14쌍(13.3%)이었다. 자녀의 수는 2명인 부부가 87명(82.9%)으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부부애착 유형

상대방에 대한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작한 관계질문지(Relation Questionnaire)를 부부에 맞게 김민희와 민경환(2007)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자아모델과 타인모델의 두 차원과 각 모델이 정적, 부정적으로 이분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안정형, 거부-회피형, 몰두형, 공포-회피형의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4범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개의 애착 유형 각각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1점=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5점=매우 일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애착 유형과 더 일치하는 것이다. 네 개의 애착 유형 각각에 대해 평정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네 개의 유형 중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응답한 범주를 개인의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애착유형 중 안정형은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가깝게 지내며, 부부가 서로 의존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며,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우이다. 몰두형은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경우이다. 거부-회피형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며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며 서로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우이다. 공포-회피형은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불편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가까워지면 상처받을까 걱정을 하는 경우이다.

결혼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Norton(1983)의 부부관계의 질 지표(Quality Marriage Index)를 사용하였다. QMI는 Norton이 기존의 결혼 만족 질문지들의 항목을 종합하여 6개의 평가적 문항으로 개발한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매우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각각 .93, .95 이었다. 이 척도는 결혼 관계에 관한 연구자들이 관계의 만족도나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추천되는 척도이다(Fincham & Bradbury, 1987).

주관적 안녕감

본 연구에 참여한 남편과 아내의 주관적 안녕감은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의 두 가지 측면으로 측정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의 생활만족척도를 사용하였다. 생

활만족도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7점 척도에 표시하게 된다(1=매우 아니다, 7=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대한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남편과 아내 각각 .92, .93이었다. 정서적 안녕감은 Campbell(1976)이 제작한 주관적 안녕감 문항 중에서 정서적 측면을 측정한 삶에 대한 느낌(Index of General Affect) 척도를 한정원(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안녕감은 감정을 나타내는 9개의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정서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형용사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안녕감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모두 .89이었다.

보살핌

부부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보살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낭만적 관계에서 보살핌을 측정하는 Kuncle와 Shaver(1994)의 척도를 이희숙(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Kuncle와 Shaver의 보살핌 척도는 아동기 애착 관계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살핌과 관련된 요소를 근거로 성인의 낭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보살핌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4개의 하위 요인(근접추구, 민감성, 협동, 강박적 보살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에는 8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에는 해당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표현

된 문항 4개와 부정적으로 표현된 문항 4개가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1=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6=매우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박적 보살핌을 제외한 근접추구, 민감성, 협동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근접추구 문항에는 '아내(남편)가 나를 필요로 하고 매달릴 때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아내(남편)가 포옹이나 키스하러 다가올 때 아내를 밀어낸 적이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감성 문항에는 '나는 아내(남편)의 기분을 알 수 있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친 적이 많다', '나는 도움과 지지를 원하는 아내(남편)의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인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동성 문항에는 '나는 아내(남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때 통제하기보다 협동적이다', '나는 아내(남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때마다 지지해준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보살핌 점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남편의 경우 근접추구 .82, 민감성 .80, 협동 .75이었으며, 아내의 경우 Cronbach's α 는 각각 .83, .71, .77이었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환상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에 대해 갖는 긍정적 환상 정도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평정과 보통의 다른 배우자에 대한 평정의 차이 값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자신의 배우자와 보통의 다른 배우자에 대한 평정은 백혜영(2007)이 사용한 배우자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최진희, 구민경 및 최인철(2002)의 특

질척도에 근거한 것이었다. 배우자 평정을 위해 먼저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의 배우자를 머리 속에 떠올리게 한 다음, 그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시된 22개의 특질 각각에 대하여 9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1=완전히 일치하지 않음, 9=완전히 일치함). 22개의 특질에는 긍정적 특질(친절하다, 관대하다, 따뜻하다 등)과 부정적 특질(변덕스럽다, 불평을 자주한다, 냉담하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가정의 배우자에 대한 평정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보통의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게 한 다음, 그 보통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배우자 평정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특질에 대하여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 점수는 자기 배우자에 대한 특질 평정 점수에서 보통의 배우자에 대한 특질 평정 점수 값을 뺀 값으로 얻어졌다. 따라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 점수가 0보다 크면 이는 자신의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며,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자기의 배우자를 보통의 배우자보다 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된다. 따라서 차이값이 클수록 자기의 배우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가 된다. 본 연구에서 남편이 평가한 아내에 대한 평정에서의 Cronbach's α 는 .82이었고, 아내가 평가한 남편의 평정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III. 연구결과

1. 부부 애착유형에 따른 관련 변인의 비교

부부의 애착 유형의 분포

본 연구에 참여한 105쌍의 중년기 부부의 애착유형의 비율이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여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 모두 안정형이 가장 비율이 높고 공포-회피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전체 105명 중 안정형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몰두형은 19.0%, 거부-회피형은 11.4%, 그리고 공포-회피형은 2.9%로 그 비율이 매우 적었다. 아내의 경우 역시 안정형이 54.3%로 가장 많았으며, 몰두형이 23.8%, 거부-회피형이 18.1%, 공포-회피형은 3.8%이었다.

표 2에는 부부간의 애착유형의 조합이 제시되어 있다. 부부의 애착유형이 일치하는 경우

표 1. 남편과 아내의 애착유형별 수(괄호 안은 %)

	애착유형				전체
	안정형	거부-회피형	몰두형	공포-회피형	
남편	70 (66.7)	12 (11.4)	20 (19.0)	3 (2.9)	105
아내	57 (54.3)	19 (18.1)	25 (23.8)	4 (3.8)	105
전체	127 (60.5)	31 (14.8)	45 (21.4)	7 (3.3)	210

표 2. 남편과 아내의 애착 유형 조합

		아내 애착유형	
		안정	불안정
남편 애착 유형	안정	49쌍(46.7%)	21쌍(20.0%)
	불안정	8쌍(7.6%)	27쌍(25.7%)

는 105쌍 중 76쌍(안정-안정과 불안정-불안정) 이었고, 불일치하는 쌍은 29쌍으로 대부분 부부의 애착유형이 서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애착유형별 배우자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

애착유형별 부부의 보살핌 정도를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전체 보살핌 정도를 보면, 남편의 애착유형에 따라 배우자를 보살피는 정도에서 차이가 났으며($F(3, 101)=5.03, p<.01$), 아내 역시 애착유형에 따라 전체 보살핌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F(3, 101)=16.47, p<.001$). 즉, 안정형 남편과 아내는 불안정한 애착유형보다 상대방을 더 잘 보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살핌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안정형 애착 아내가 불안정한 애착의 아내보다 남편에 대해 더 근접추구를 하고($F(3, 101)=13.00, p<.001$), 민감하고($F(3, 101)=9.78, p<.001$), 협동성을 보이는($F(3, 101)=9.74, p<.001$) 반면, 안정형 애착의 남편의 근접추구

와 불안정 애착 남편의 근접추구에 차이가 없었다. 사후분석 결과, 배우자에 대한 민감성과 보살핌에서도 아내의 경우만큼 안정애착의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이란 자신의 관계가 매우 좋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살펴주고 책임져주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 믿음이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 점수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점수에서 보통의 다른 가정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점수를 뺀 값이다. 따라서 긍정적 환상 점수가 높다는 것은 다른 배우자보다 자신의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은 더 높은 것이 된다.

애착유형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 점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남편/아내) 변인과 애착유형에 대한 이원변량 분석 결과, 애착유형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3, 101)=9.29, p<.001$). 즉, 안정애착

표 3. 남편과 아내의 애착유형별 보살핌 하위요인 평균과 표준편차

		애착유형				F
		안정형	거부-회피형	몰두형	공포-회피형	
남편	근접추구	35.94(6.41)	33.67(5.68)	33.45(6.19)	27.3(10.41)	2.50
	민감성	30.21(6.15)	29.83(5.24)	27.05(7.28)	20.33(5.86)	3.39*
	협동성	33.33(5.96)	28.75(6.43)	30.30(5.33)	21.33(5.77)	6.22**
	전체	99.49(15.92)	92.25(15.76)	90.80(14.38)	69.00(21.70)	5.03**
아내	근접추구	36.32(6.44)	26.53(7.23)	31.36(6.42)	26.50(4.04)	13.00***
	민감성	34.56(5.19)	28.11(5.30)	29.92(6.57)	26.25(4.27)	9.78***
	협동성	34.95(6.12)	28.32(6.16)	29.04(7.71)	24.00(3.46)	9.74***
	전체	105.82(14.50)	82.95(15.92)	90.32(15.48)	76.75(9.85)	16.47***

* $p<.05$, ** $p<.01$, *** $p<.001$

표 4. 남편과 아내의 애착유형별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의 평균과 표준편차

	애착유형				F
	안정형	거부-회피형	물두형	공포-회피형	
남편	18.90(23.80)	0.75(15.20)	8.35(21.87)	-20.33(22.86)	5.17**
아내	20.84(26.95)	-2.89(37.46)	-2.84(25.81)	10.00(20.38)	5.65**

** $p < .01$

긍정적 환상 점수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평정한 값에서 보통의 다른 배우자를 평정한 값을 뺀 값임.
-값은 자신의 배우자를 보통의 다른 배우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임.

일수록 상대방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애착유형별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 평가와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 평가의 평균을 보면, 남편의 경우, 안정애착을 지닌 남편은 불안정 애착의 남편보다 아내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F(3, 101)=5.17, p < .01$), 아내의 경우 역시 안정형 애착의 아내가 불안정형 애착의 아내들보다 남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 101)=5.65, p < .01$).

애착유형별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남편과 아내의 애착유형별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이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애착유형별 결혼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남편과 아내의 애착유형의 주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101)=40.35, p < .001$).

001). 남편과 아내의 애착유형별로 결혼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남편($F(3, 101)=15.01, p < .001$)과 아내($F(3, 101)=26.71, p < .001$) 모두 애착유형이 안정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사후 검정(LSD)결과, 안정형 남편은 거부-회피형, 물두형, 공포-회피형 남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불안정 애착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형 아내 역시 안정형 아내가 나머지 3개 유형의 불안정 애착형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거부-회피형 아내와 물두형 아내 간에는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은 공포-회피형 아내보다는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5. 남편과 아내의 애착유형별 결혼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애착유형				F
	안정형	거부-회피형	물두형	공포-회피형	
남편	24.33 (3.91)	19.50 (4.34)	19.55 (4.10)	14.00 (2.00)	15.01***
아내	24.19 (4.60)	18.32 (3.76)	17.80 (3.62)	13.25 (3.40)	26.71***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남편과 아내의 애착유형별 주관적 안녕감 평균과 표준편차

	주관적 안녕감	애착유형				F
		안정형	거부-회피형	몰두형	공포-회피형	
남편	생활만족도	21.56 (7.41)	19.92 (7.17)	18.35 (6.72)	19.00 (3.61)	1.14
	정서적 안녕감	46.56 (8.72)	42.83 (5.10)	37.60 (9.59)	40.67 (4.73)	6.06**
아내	생활만족도	22.30 (6.31)	18.05 (6.08)	16.92 (6.12)	13.25 (7.41)	6.73***
	정서적 안녕감	48.16 (8.50)	39.37 (9.68)	36.92 (6.63)	32.7 (11.87)	14.49***

* $p < .05$, ** $p < .01$, *** $p < .001$

표 6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의 양상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경우에는 안정형과 불안정형 간에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에 아내의 경우에는 안정형과 불안정형 간의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현저하다.

생활만족도의 경우에도 애착유형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3, 101)=5.98, p < .001$). 표 6의 생활만족도를 보면, 남편의 애착유형 간에는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F(3, 101)=1.14, ns$), 아내의 경우에는 안정형의 아내의 생활만족도가 불안정형 아내의 생활만족도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 101)=6.73, p < .001$). 사후 검증(LSD) 결과, 안정형 아내는 거부-회피형($p < .05$), 몰두형($p < .01$), 공포-회피형($p < .01$)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애착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적 안녕감 역시 애착유형의 주효과만 나타났다($F(3, 101)=18.74, p < .001$). 그런데 몰두형 남편의 정서가 나머지 세 유형의(안정형, 거부-회피형, 공포-회피형) 남편보다 정서적 안녕감이 더 낮은 반면에 안정형 아내의 정서적

안녕감은 세 가지 유형의 불안정형 아내의 정서적 안녕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 101)=14.49, p < .001$). 즉, 안정형 애착의 아내의 정서적 안녕감은 거부-회피형($p < .001$), 몰두형($p < .001$), 그리고 공포-회피형($p < .01$) 아내보다 정서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에서 안정형 아내는 일관성있게 불안정형 아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남편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중년기 부부의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환상과 보살핌, 결혼만족도,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신이 배우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했을 때, 배우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배우자와 친밀함을 추구하며, 긍정적으로 보살피며 협동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된 애착일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안정된 애착관계는 관계자체에 대한 만족과 헌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건강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생활에 대한 만족(생활만족도)과 정서적 안녕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2. 애착, 보살핌 및 긍정적 환상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안정애착 정도가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안정애착 정도가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안정애착 정도는 부부의 애착 유형을 재는 네 가지 문항 중 안정애착 범주에서 개인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라고 응답한 값이다.

회귀분석 결과 남편과 아내의 경우 차이가 있었다. 남편의 경우 안정애착 정도는 배우자

에 대한 보살핌을 6%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24, p<.05$), 아내에 대한 긍정적 환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의 안정애착 정도는 남편에 대한 보살핌의 25%를 설명하고($\beta=.50, p<.001$), 남편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13%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6, p<.001$). 이 분석에서도 안정애착 정도는 남편보다 아내에게서 배우자에 대한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안정애착 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안정애착 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

표 7. 안정애착 정도가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남편	보살핌	안정애착	.24	2.54*	.06	6.43*
	긍정적 환상	안정애착	.17	1.79	.03	3.21
아내	보살핌	안정애착	.50	5.85***	.25	34.24***
	긍정적 환상	안정애착	.36	3.88***	.13	15.04***

* $p<.05$, ** $p<.01$, *** $p<.001$

표 8. 안정애착 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남편	결혼만족도	안정애착	.45	5.06***	.20	25.59***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27	2.89**	.08	8.35**
		정서적 안녕감	.30	3.20**	.09	10.26**
아내	결혼만족도	안정애착	.56	6.79***	.31	46.06***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36	3.90***	.13	15.23***
		정서적 안녕감	.58	7.27***	.34	52.82***

* $p<.05$, ** $p<.01$, *** $p<.001$

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안정애착의 정도는 각각 결혼만족도의 20%와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 p<.001$; $\beta=.56, p<.001$). 또한 안정애착의 정도는 남편과 아내의 주관적 안녕감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애착 정도는 남편의 주관적 안녕감을 17%, 아내의 주관적 안녕감을 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애착 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남편과 아내

내 간에 차이가 있었다.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는 남편의 경우이고, 표 10은 아내의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9를 보면,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 모두

표 9.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의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예언변인	β	t	R^2	ΔR^2	F
결혼만족도	1	보살핌	.63	8.16***	.39		66.63***
	2	보살핌	.53	6.89***			44.93***
		긍정적 환상	.29	3.81***	.47	.08	
주관적 안녕감	1	보살핌	.39	4.35***	.16		18.89***
	2	보살핌	.30	3.26**			14.31***
		긍정적 환상	.27	2.90**	.22	.06	

* $p<.05$, ** $p<.01$, *** $p<.001$

주관적 안녕감은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을 합친 것임.

표 10.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의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예언변인	β	t	R^2	ΔR^2	F
결혼만족도	1	보살핌	.54	6.49***	.29		42.07***
	2	보살핌	.42	4.93***			29.74***
		긍정적 환상	.30	3.56**	.37	.08	
주관적 안녕감	1	보살핌	.51	5.97***	.26		35.69***
	2	보살핌	.43	4.72***			21.34***
		긍정적 환상	.21	2.34*	.30	.04	

* $p<.05$, ** $p<.01$, *** $p<.001$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아내에 대한 보살핌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39%를($\beta=.63, p<.001$), 긍정적 환상이 추가될 경우 결혼만족도의 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9, p<.001$). 또한 아내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은 남편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아내에 대한 보살핌이 남편의 주관적 안녕감의 16%를($\beta=.39, p<.001$), 긍정적 환상이 추가될 경우 주관적 안녕감의 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7, p<.01$).

표 10을 보면, 남편에 대한 보살핌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29%를($\beta=.54, p<.001$), 긍정적 환상이 추가될 경우 결혼만족도의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0, p<.01$). 또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보살핌은 아내의 주관적 안녕감의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1, p<.001$), 긍정적 환상이 추가될 경우 주관적 안녕감의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 p<.05$). 이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개인의 결혼만족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내의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

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남편과 아내의 애착에서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모형의 탐색

앞서의 분석을 통해 안정애착 정도는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과 보살핌,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 역시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관련 변인들이 남편과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애착 정도에서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때 남편과 아내의 자료를 구분하여 다양한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안정애착 정도에서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다양한 모델을 설정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로모형이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남편의 안정애착에서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모형은 여러 가지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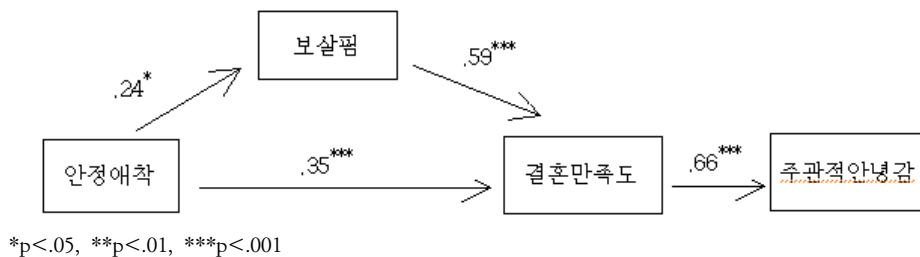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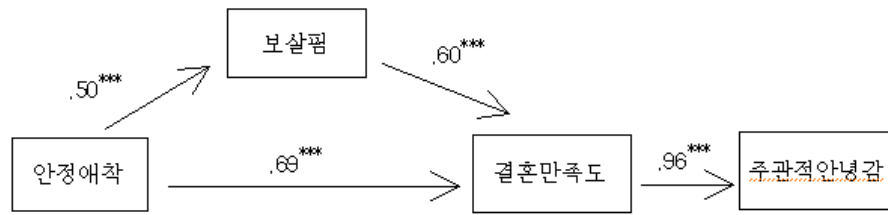


그림 1. 남편의 안정애착 정도에서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분석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아내의 안정애착 정도에서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분석

도 지수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X^2=.397$, $df=1$, $p=.529$, $GFI=.998$, $CFI=1.00$, $NFI=.997$, $RMSEA=.000$). 또한 그림 2에 제시된 아내의 안정애착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모델 역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X^2=.056$, $df=1$, $p=.814$, $GFI=1.00$, $CFI=1.00$, $NFI=1.00$, $RMSEA=.000$).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된 모델을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은 결혼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은 결혼만족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안정애착이 관계만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도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애착 유형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분석을 통해 안정애착 정도가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평가, 결혼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평가가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경로를 탐색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적합한 경로모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105쌍의 중년기 부부의 애착유형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안정형 애착 비율이 60%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는데 이는 국내외 성인애착 연구에서도 얻어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부부애착 중 안정형 남편이 안정형 아내보다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도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김민희, 민경환, 2007; Hazen & Shaver, 1987; Kirpatrick & Davis, 1994; Senchak & Leonard, 1992). 안정애착을 보인 부부가 가장 많은 가운데, 본 연구에 참여한 105쌍의 부부 중 76쌍이 아내와 남편의 애착 유형이 일치하였으며(72.4%), 나머지 29쌍(27.6%)은 일치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남편이 불안정형 애착일 때 아내가 안정형인 경우는 8쌍(7.6%)밖에 되지 않았지

만, 남편이 안정형 애착인 경우에 아내가 불안정형 애착인 경우는 21쌍(20.0%)이나 되었다. 부부간의 애착 조합을 조금 더 세분해보면, 부부애착 일치형에는 남편안정-아내안정형과 남편불안정-아내불안정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부애착 불일치형에는 남편안정-아내불안정형과 남편불안정-아내안정형이 포함된다. 부부간의 애착 조합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안정-안정 집단이 안정-불안정이나 불안정-불안정 집단보다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 점수가 더 높았고, 보살핌에 대한 부담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의 일치된 안정애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김민희, 민경환, 2007).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애착 유형의 조합에 따른 결혼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 등 그 특성에 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 부부간의 애착 불일치 사례에서 남편보다 아내의 불안정 사례가 훨씬 더 높은 점을 고려해볼 때,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쪽의 불안정이 결혼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남편과 아내 애착유형의 불일치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욕구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애착 유형을 살펴본 결과, 4가지 애착 유형 중 공포-회피형에 속하는 사례는 극소수이었다(105명 중 남편은 3명, 아내는 4명). 그리고 불안정애착 유형에 해당되는 거부-회피형과 몰두형 두 집단 간에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서 집단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정형 애착의 남편과 아내가 불안정형 남편과 아내에 비해 배우자에게 더 민감하고 협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형 애착 아내는 불안정한 애착 아내에 비해 근접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안정형 애착 남편은 불안정 애착의 남편과 근접추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들이 애착유형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에서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상호지지와 보살핌은 부부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Cutrona, 1996; Feeney, 1996; Weiss, 1982), 부부간 애착유형을 연구할 때 결혼시기별로 구분하여 남편에게서 아내의 의미, 그리고 아내에게서 남편의 의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애착에 관한 내적작동모델에 따르면(Bowlby, 1989), 애착은 상대방에 대한 보살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안정형 애착 집단이 다른 불안정 애착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안정된 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Murray & Holmes, 1997; Murray, et al., 2000).

부부의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안정형 애착 집단이 불안정형 애착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

여주었다(김광은, 2005; 김민희, 민경환, 2007; 이희숙, 박경, 2008; Kobak & Hazan, 1991; Senchak & Leonard, 1992; Simpson, 1990). 애착 유형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안정형 애착의 아내는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 모두 불안정 애착 유형의 아내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정서적 안녕감에서는 안정형 남편이 몰두형 남편에 비해 정서적 안녕감이 더 높았을 뿐이었다. 이런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애착의 질이 남편의 심리적 안녕감보다 아내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안정 애착 커플이 불안정 애착 커플에 비해 결혼생활에서 더 적응을 잘 한다는 선행 결과가 있지만(Senchak & Leonard, 1992), 앞으로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여 분석을 해본다면 보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애착유형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 결혼만족도,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신이 배우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했을 때 배우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배우자를 잘 보살피며, 결혼만족도도 높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배우자와 안정된 애착관계는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부부간의 애착유형에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간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부부의 안정애착 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안정애착 정도는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와 얼마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느냐가 결혼과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Carnelley et al., 1996; Collins & Feeney, 2000; Fuller & Fincham, 1995; Kirkpatrick & Davis, 1994).

애착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실제로 상대방을 얼마나 잘 보살피느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유형과 관계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지만 무엇이 관계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었다(김민희, 민경환, 2007; 이희숙, 박경, 2008; Davila,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상대방에 대한 보살핌이 결혼만족도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보살핌은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보살핌의 중요성은 애착에서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남편과 아내의 경로모델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경로모델 분석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보살핌은 결혼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은 매개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앞서의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보살핌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남편의 경우 안정애착 정도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환상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보살핌이 결혼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결혼만족도에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의 매개 가능성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더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은 보살핌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결혼만족도를 보면, 아내에 대한 보살핌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39%를 설명하는 반면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보살핌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보살핌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는 결혼만족도와는 양상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아내에 대한 보살핌은 남편의 주관적 안녕감의 16%만을 설명하는 반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보살핌은 아내의 주관적 안녕감의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에 대한 보살핌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부간의 보살핌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안정애착 정도는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환상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있었다. 안정형 애착 남편은 아내에게 보살핌을 더 많이 제공하고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다른 가정의 아내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긍정적 환상 점수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아내의 경우에는 안정형 애착 아내

는 남편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남편에게 도움을 많이 제공하며, 자신의 남편을 다른 가정의 남편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마도 남편이 아내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되는 경우 아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화가 덜 필요하지만, 남편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한 보살핌 뿐 아니라 남편에 대한 긍정적 환상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내의 경우 긍정적 환상은 상대방을 더 좋아할 수 있는 해석적 여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Holmes & Rampel, 1989; Murray, 1999; Murray & Holmes, 1993, 1994; Murray et al., 1996a, 1996b).

본 연구는 연애관계와 결혼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성인애착 연구를(Bartholomew & Hrowitz, 1991; Gallo & Smith, 2001; Kirkpatrick & Davis, 1994) 부부가 중심이 되는 중년기로 확장하여 중년기 부부 애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효과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안정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살핌으로써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비대칭성을 연구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을 안내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애착에서 결

혼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만 결혼만족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긍정적 환상 측정치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가상의 다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개인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배우자와의 비교없이 자신의 배우자를 평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애착 정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역으로 결혼에 대한 만족이 높음으로 인해 서로에 대해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었을 수 있다. 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는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애착 개념과 보살핌과의 개념적 중복성에 관한 것으로, Bartholomew와 Horowitz (1991)의 척도를 사용하여 애착 유형을 측정한 본 연구에서 안정 애착형은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가깝게 지내며, 부부가 서로 의존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며,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 정도는 Kuncle와 Shaver의 보살핌 척도 중 배우자에 대한 근접추구, 배우자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과 협동성의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배우자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은 배우자에게 근접하려하며 심리적 안전기지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Bowlby, 1969; Berman & Sperling, 1994), 애착 개념과 보살핌에서 배우자에 대한 근접성이란 요소가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급속

한 고령화와 더불어 부부가 함께 지내는 기간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의 결혼생활 뿐 아니라 노년기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조명도 매우 절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애착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서구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 서구와 한국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어 배우자의 어떤 행동이 관계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일기연구와 같은 질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부부만의 행동양식을 찾아내고 부부관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고 및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은 (2005).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민희, 민경환 (2007).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213-233.
- 박고운, 이기학 (2007).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수용 및 친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9(1), 71-85.
- 백혜영 (2007). 애정관계에서의 낙관성-상대에 대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숙, 박 경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정현숙 (2001). 디지털시대, 협공 받는 중년기 가족.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가정관리학회 2001년도 30차 추계 학술대회*. 33-45.
- 최진희, 구민경, 최인철 (2002). 관계고양지각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53-74.
- 한정원 (1997). 정서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pp.3-28). New York: Guilford Press.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_____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89). The role of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In S. I. Greenspan, & G. H. Pollock (Eds.), *The course of life: Infancy*(pp.229-270).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 401-416.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53-1073.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in couples*. Thousand Oaks, CA: Sage.
- Davila, J.,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8). Negative affectivity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5, 465-484.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eeney, J. A.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3, 401-416.
- Felmlee, D., Sprecher, S., & Bassin, E. (1990). The dissolution of intimate relationships: A hazard

-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1), 13-30.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87). The impact of attributions in marriag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81-489.
- Fuller, T. L., & Fincham, F. D. (1995). Attachment style in married couples: Relation to current marital functioning, stability over time, and method of assessment. *Personal Relationships*, 2, 17-34.
- Gallo, L. C., & Smith, T. W. (2001). Attachment style in marriage: Adjustment and responses to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 263-289.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lmes, J. G., & Rempel, J. K. (1989).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In C. Hendrick(Ed.), *Close relationships*(pp.187-220). Newbury Park, CA: Sage.
- Johnson, D. J., & Rusbult, C. E. (1989). Resisting temptation: Devaluation of alternative partners as a means of maintaining commitment in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967-980.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relationships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Klohnen, E. C., & Bera, S. (1998). Behavioral and experiential patterns of avoidantly and securely attached women across adulthood: A 31-year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11-223.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Kunce, L. J., & Shaver, P. R. (1994).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caregiv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K. Bartholomew, & D. Perlman(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pp.205-237). London :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Levy, M. B., & Davis, K. E. (1988). Lovestyle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Moore, S., & Leung, C. (2002). Young people's romantic attachment style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25(2), 243-255.
- Murray, S. L. (1999). The quest for conviction: Motivated cogni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10(1), 23-34.
- Murray, S. L., & Holmes, J. G. (1993). Seeing virtues in faults: Negativ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personal narratives in

-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707-722.
- _____ (1994). Story-telling in close relationships: The construction of confi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663-676.
- _____ (1997). A leap of faith? Positive illusions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586-604.
- Murray, S. L., Holmes, J. G., Dolderman, D., & Griffin, D. W. (2000). What the Motivated Mind Sees: Comparing Friends' Perspectives to Married Partners' views of Each Oth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 600-620.
- Murray, S. L., Holmes, J. G., & Griffin, D. W. (1996a). The Benefits of Positive Illusion: Ide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79-98.
- _____ (1996b). The self-fulfilling nature of positive illusions in romantic relationships: love is not blind, but presc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155-1180.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Perren, S., Schmid, R., Herrmann, D., & Wettstein, A. (2007). The impact of attachment on dementia-related problem behavior and spousal caregivers' well-being.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9(2), 163-178.
- Senchak, M., & Leonard, K. E. (1992). Attachment style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 51-64.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ei, M., Liao, Y. H., Ku, T. Y., & Shaffer, P. A. (2011). Attachment, self-compassion, empath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and community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79(1), 191-221.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 171-184). New York: Basic.

1차 원고접수 : 2011. 3. 31

수정원고접수 : 2011. 5. 13

최종게재결정 : 2011. 5. 25

The Effects of Attachment, Care-giving, and Positive Illusion upon Marit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Aged Married Couples

Kim, Na-Young

Cholok-I Developmental Center

Chong, Young-Sook

Dep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attachment, care-giving and positive illusion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105 middle-aged couple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cure attached husbands and wives rated to their partners more positively than the other three insecure attached groups. Second, secure attached wives gave more care-giving to their husband such as in proximity, sensitive responses, and cooperation than the insecure attached wives, but secure attached husbands gave more care-giving to their wives in two areas, namely sensitive responses and cooperation, more so than the insecure attached husbands. Third, husbands and wives classified as having secure attachment showed levels of higher marital satisfaction than the three groups with insecure attachment. Fourth, secure attached wives reported both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al well-being than the three groups of insecure attached wives, but secure attached husbands reported higher levels only in terms of emotional well-being than the three groups of insecure attached husbands.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marital satisfaction, subjective well-being, care-giving, and positive illusion were positively affected by the secure attachment of the couples. Finally, it was found that care-giving was a mediating variable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middle-aged married couple, attachment style, marital satisfaction, subjective well-being, care-giving, positive illusion